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9월 11일(수)

## 윤석열 대통령,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접견(9.11.)

### -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안 모색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11, 수) 오후 방한 중인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한-캄보디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훈 센 상원의장은 캄보디아 총리 역임(1985-2023.8) 후 2024.4.3. 상원의장 취임

대통령은 「훈 센」 상원의장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캄 양국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훈 센」 의장의 관심과 지지 아래 올해 5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예정인 만큼, 우리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중요한 파트너인 캄보디아와의 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캄 양국 국민들이 마음 놓고 서로의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예방과 소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훈 센」 상원의장은 자신은 한국을 캄보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 다며,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2022년 발효된 한-캄 FTA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활발히 견인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캄 우정의 다리」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협력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훈 센」 상원의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끝>